

에어컨 살 때 반드시 알아야 할 8가지 진실

견적서 맨 밑의 '숫자'만 보고 계약했다가
수백만 원 누수·먹튀 피해를 겪는 분들이 매년 반복됩니다.
계약서에 서명하기 전, 딱 20분만 이 가이드를 읽어 보세요.

-
- 01 에어컨이 '반제품'인 이유 — 시공이 절반을 결정합니다
 - 02 설치하고 사라지는 업체, 계약 전에 거르는 법
 - 03 다배관 vs 단배관 · 선시공 vs 후시공 — 우리 집의 정답
 - 04 구축 아파트의 두 관문 — 천장 17cm와 오래된 전선
 - 05 매년 가스 충전? 그건 고장 신호입니다

차례

- | |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01 | 에어컨은 완제품이 아닌 '반제품'입니다 | 기계 50% + 시공 50% |
| 02 | 설치하고 사라지는 업체를 거르는 법 | 먹튀·연락두절의 실체 |
| 03 | 다배관 vs 단배관 — 우리 집 구조의 정답 | 소음·비용·마감 |
| 04 | 선시공 vs 후시공 — 시간의 가치 | 최신 가전 vs 구형 가전 |
| 05 | 구축 아파트의 두 관문 | 천장 17cm · 전선 4.0sq |
| 06 | 살면서 시공하는 날 | 보양 텐트 · 오전 11시 반 |
| 07 | 삼성 vs LG — 브랜드가 아니라 일상으로 고르세요 | 무풍·무드등 vs AI |
| 08 | 매년 가스 충전? 관리의 진실 | 누수·곰팡이·송풍 |
| 09 | 보너스 사장님용 — 평수×3배와 최대 160만 원 환급 | 상업 매장 |
| 10 | 부록 계약 전 3분 체크 — 5대 골든 룰 | 최종 점검표 |

에어컨은 완제품이 아닌 '반제품'입니다

에어컨은 코드만 꽂으면 켜지는 TV·냉장고와 완전히 다릅니다. 시스템에어컨은 **공장에서 만든 기계가 50%, 현장에서 배관을 설계·조립하는 시공 품질이 나머지 50%**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'반제품' 설비입니다.

현장에서 배관 본드칠을 아주 미세하게 실수하면 **천장 누수**가 시작되고, 조임 한 번만 어설퍼도 보이지 않는 틈새로 **냉매 가스가 전부 누설**되어 에어컨은 바람만 나오는 무용지물이 됩니다.

즉, 아무리 대기업 최신형 명품 에어컨을 사더라도 **누가 시공하느냐에 따라 10년 쓰는 명품이 될 수도, 수시로 하자가 터지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** 있습니다.

✓ 기억하세요

- 비교 견적에서 '제품 모델'은 같아도 '시공 품질'은 업체마다 완전히 다릅니다.
- 규격 미달의 얇은 보온재는 천장 속 결로 → 석고보드 부식 → 온 집안 곰팡이로 이어집니다.
- 싼 견적의 비밀은 대부분 **비승인 자재**와 생략된 공정에 있습니다.

설치하고 사라지는 업체를 거르는 법

결로·누수는 설치 직후가 아니라 **이듬해 여름**에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천장이 젖어 다급하게 전화를 걸면 **번호가 바뀌었거나 이미 폐업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**를 마주하는 피해자가 매년 반복됩니다. 수백만 원의 천장 복구비와 아랫집 보상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됩니다.

"대형마트·대기업 페스티벌이면 안전하겠지"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. 여름 물량이 폭주하면 **1회성 외주 팀**에 현장이 넘어가고, 하자가 나면 유통사와 외주 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분쟁 속에 소비자만 남습니다.

⚠ 계약 전 이것만 확인하세요

- **실체가 있는 법인인가?** — 사업자등록·법인 여부·업력. 폐업하고 이름 바꿔 다시 여는 유령 사업자인지.
- **누가 직접 시공하는가?** — 전속 직영 팀인지, 성수기 하청 프리랜서인지.
- **하자 시 연락할 곳이 한 곳인가?** — 판매와 설치가 분리되면 책임도 분리됩니다.
- **상식 밖의 초저가 견적 = 현장 추가금 폭탄**이거나 비승인 자재의 신호입니다.

비교의 기준을 바꾸십시오. 몇만 원 더 싼가가 아니라, **"하자 청구 때 내 전화를 받고 달려올 회사인가"**가 소중한 집을 지키는 유일한 열쇠입니다.

다배관 vs 단배관 — 우리 집 구조의 정답

배관 방식은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니라 실제 거주할 때 체감하는 **소음·비용·마감의 가치**를 완전히 바꿉니다.

● 다배관 — 정숙함과 안정성

- 실외기에서 각 실내기로 배관이 **1대1 직접 연결**. 용접이 적어(평균 15회 내외) **가스 누설 위험이 극히 낮습니다**.
- 냉매 제어 밸브가 실외기 쪽에 있어 **천장 속 소음이 전혀 없음** — 조용한 침실이 최우선이라면 정답.
- 30평대 이하 · 실내기 4대 이하에 가장 합리적.

● 단배관 — 대형 평수와 깔끔한 마감

- 굵은 주배관 하나가 나가고 **분지관(Branch)**으로 나뉘어가지처럼 분기. 실외기실 노출이 매우 깔끔.
- 배관을 최장 100m까지 연장 — **40~50평대 이상·복잡한 구조**에 최적.
- 단, 용접 20~30회 이상·분지관 자재비 소폭 추가, 예민한 분은 미세한 냉매 소음을 느낄 수 있음.

같은 평형 옆집과도 천장 속 배관 라인은 100% 다릅니다. 소방 스프링클러·환기 배관이 얹힌 천장 속에서, 물이 1%도 역류하지 않는 **배수 경사(구배) 설계**가 기술자의 한 곳 차이입니다.

선시공 vs 후시공 — 시간의 가치

선시공(건설사 옵션)은 골조 단계에 배관을 미리 매립합니다. 고정이 단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**건설사 중간 마진이 크게 붙어 고가**이고, 결정적으로 **시간의 간극**이 있습니다 — 분양 때 고른 가전이 실제 입주(2~3년 뒤) 시점엔 이미 구형이 되어 천장에 달립니다.

후시공(입주 전 개별 시공)은 준공 후 입주 기간에 진행합니다. 석고보드를 부분 타공하지만 실크 벽지를 정교하게 열었다 되붙이는 '스킬 도배'로 **복원을 95% 이상의 깔끔한 마감**이 가능합니다.

✓ 후시공의 결정적 가치

- 불필요한 중간 마진 제거 — **비용이 훨씬 경제적.**
- 계약 당일 생산된 최신 AI 가전·프리미엄 스펙을 선택해 설치.
- 내 인테리어 콘셉트에 맞춘 배치·마감 협의 가능.

구축 아파트의 두 관문 — 천장 17cm와 오래된 전선

실내기가 천장 안으로 감쪽같이 매립되려면 천장 속 깊이(반자)가 **최소 17~18cm** 필요합니다. 자가 진단법: 다운라이트 조명을 살짝 탈거하고 줄자를 넣어 콘크리트까지 깊이를 재 보세요. 부족하면 **목공 단내림**(간접조명까지 매립하는 호텔식 마감) 또는 **제조사 슬림 키트**(경제적 대안)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더 중요한 것은 전선입니다. 2010년 이전 구축은 에어컨 전용선이 대부분 **2.5sq 수준으로 얇습니다**. 여기에 대용량 실외기를 그대로 물리면 전선이 과열되어 **보이지 않는 천장 속 화재**로 이어질 수 있고, 차단기가 수시로 내려갑니다.

⚠️ 구축 필수 안전 공사

- 기존 얇은 2.5sq 전선을 빼내고 **4.0sq 규격으로 새로 포설**.
- 누전 차단기를 **30A 용량으로 업그레이드**.
- 이 비용은 추가 요금ی 아니라 **10년 단전·화재 불안을 없애는 안전 보험료**입니다.

살면서 시공하는 날 — 보양 텐트와 '오전 11시 반'

거주 중 시공의 핵심은 **보양**입니다. 진짜 보양은 비닐 몇 장이 아니라, 에어컨 자리와 동선을 뺀 모든 공간을 커버링 테이프와 전용 보양재로 **핸드폰 신호가 끊길 정도로 완벽히 밀폐**하는 것입니다.

"먼지가 100% 안 난다"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— 정직한 업체는 "**철수 2시간 뒤 가볍게 물걸레질 한번**"이라는 현실적인 가이드를 드립니다.

그리고 시간. 원데이 시공은 3~4명이 **7~9시간** 달리는 대공사인데, 공동주택 소음 규정상 오후 5~6시 이후엔 큰 소음 작업이 불가합니다. 오후에 시작하면 시간에 쫓겨 **배관 경사를 날림으로** 잡게 되고, 1~2년 뒤 어김없이 천장 누수로 돌아옵니다.

✓ 시공 당일 골든 룰

- **오전 11시 반 이전 공사 시작**을 반드시 확보 (이사 잔금 지연 주의).
- 노트북·카메라 등 귀중품은 밀폐된 다른 방으로 미리 대피.
- 워시타워·드레스룸 시스템 선반 등은 **제조사 기사를 통해 사전 이설**.

삼성 vs LG — 브랜드가 아니라 '나의 하루'로 고르세요

두 브랜드가 제안하는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. "어느 쪽이 우월한가"가 아니라 **"나는 내 집에서 어떤 일상을 누리고 싶은가"**를 물어야 합니다.

● 삼성 비스포크 인피니티 — 감성과 스마트

- **엣지 라이팅 무드등** — 에어컨을 끈 밤에도 호텔 라운지 같은 간접 조명.
- **와이드 무풍** — 직바람 없이 숲속 같은 시원함, 소리 없는 정숙.
- **태양열 리모컨**·집 도착 100m 전 켜지는 웰컴 쿨링.

● LG 프리미엄 AI — 지능과 효율

- **레이더 센서** — 미동 없이 잠들어도 사람을 인식, 직접풍을 피해 바람 조절.
- **AI 실외기** — 실시간 분석으로 초정밀 저전력 운전, 관리비 절감.
- **AI 자가진단** — 고장 나기 전에 기기가 먼저 알려주는 예방 시스템.

기억하세요 — 어떤 브랜드를 고르든 **천장 속 배관을 엉망으로 하면 그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.**
최종 가치는 언제나 시공 파트너가 완성합니다.

매년 가스 충전? 그건 '고장 신호'입니다

냉매는 자동차 연료 같은 소모품이 아닙니다. **한 번 충전하면 철거할 때까지 반영구적으로 순환**합니다. 매년 충전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**가스 누설 하자**가 진행 중이라는 위험 신호입니다.

✅ 누설 시점별 대응

- **설치 1~2년 내** — 시공 하자 확률 90% 이상. 시공업체에 **기밀 테스트**를 요구하세요.
- **3~4년 이후** — 부품 노후·열교환기 부식 가능성. **제조사 서비스센터**가 빠릅니다.

곰팡이·악취 예방의 진짜 비법은 '자동건조'가 아니라 **송풍(Fan) 모드**의 **일상화**입니다. 끄기 전 송풍 4~5시간 타이머 — 실외기가 돌지 않아 전기세 부담 없이 내부 수분을 완벽히 말립니다. 이 습관 하나로 3~4년 이상 새 제품 같은 공기를 유지합니다.

⚠️ 누수가 가장 무서운 이유

- 드레인 **구배(경사) 불량** → 물이 역류해 천장으로.
- PVC 배관 **본드칠 미흡** → 아랫집 도배까지 적시는 대형 사고.

매장은 평수 × 3배, 그리고 최대 160만 원 환급

상업 공간의 에어컨은 가전이 아니라 **매출 인프라**입니다. 통유리 복사열·손님 체온·주방 열기 때문에 사무실은 평수의 **1.5~1.8배**, 불판을 쓰는 고깃집은 **최소 3배 용량**이 필수입니다. 고깃집은 기름때에 강하고 토출이 힘있는 **대용량 스탠드**가 정답입니다.

✓ 한전 소상공인 지원사업

- 에너지효율 **1등급** 냉난방기 구매 시 **구매액의 40%, 최대 160만 원** 환급.
- **신규 창업자도 즉시 대상** — 노후 교체가 아니어도 됩니다.
- 현금 유도·금액 부풀리기는 부정수급(환수+위약금) — 정식 절차로만.

그리고 **중고 에어컨은 시한폭탄**입니다. 보증이 없고, 이전 설치 중 기판(PCB)이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해 "60만 원 아끼려다 수리비 60만 원"이 되는 이중지출의 지름길입니다.

계약 전 3분 — 5대 골든 룰 점검표

1 에어컨은 반제품이다

- 제품 스펙이 아니라 **시공 자재·공정**을 물었는가? (보온재 규격·진공 공정 포함 여부)

2 우리 집 천장은 옆집과 다르다

- 현장 실측 없이 확정가를 부르는 업체는 아닌가? **구배 설계**를 설명할 수 있는가?

3 구축은 전선부터

- 2010년 이전 아파트라면 **4.0sq 포설 + 30A 차단기**가 견적에 있는가?

4 시공 당일 골든타임

- 오전 11시 반 이전 **시작**이 확보됐는가? 보양 방식은 구체적인가?

5 사라지지 않는 회사인가

- 법인 실체·업력·직영 팀 여부, **하자 시 연락 창구가 한 곳**인지 확인했는가?

다섯 개 중 하나라도 "아니오"라면, 그 계약은 잠시 멈추셔도 좋습니다. 몇만 원의 차이가 아니라 10년의 평온이 걸린 결정이니깐요.

가격이 아니라, 책임을 사세요

고수의시공은 에어컨 판매와 설치를 한 회사가 책임지는 단일 책임
시공 브랜드입니다.

확정견적 — 약속 외 추가금 0원. 하자가 생겨도 연락할 곳은 한 곳.
우리는 폐업하거나 이름을 바꿔 사라지지 않고, 언제나 그 자리에서
책임을 다합니다.

1800-9503

gosusigong.com

고수의시공 · 운영사 위고수 주식회사 · 대표 강형욱

사업자등록번호 860-81-02262 · 통신판매업신고 제2025-서울강남-02949호

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26 (도곡동, 타워팰리스)

본 가이드의 통계·수치는 한국소비자원 발표 자료 등 공개 출처를 기반으로 하며, 시공 사양·비용은 현장 확인 후 확정견적으로
안내합니다.